

중국 성선설 소고

A Christian Consideration on 'Seung-Sun' Theory of the Ancient China

박성기

- I. 서론
- II. 성선설의 형성
- III. 공맹의 성선설
- IV. 순자의 성악설
- V. 송대(宋代)의 성선설
- VI. 성선설의 허상
- VII. 본성의 실상
- VIII. 구원론
 - 1. 자구론(自救論)
 - 2. 대행구원론(代行救援論)
- IX. 결론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Seung - sun'(The doctrine that man's inborn nature is good) - theory which constitutes the base of anthropocentric world view in ancient china. The content consists of the following categories : 1. preface, 2. formation of the 'Seung - sun' - theory, 3. the 'Seung - sun' - theories of the Confucius and Mencius, 4. the 'seung - ak'(the doctrine that man's inborn nature is evil) - theory of Hsun zu. 5. 'Seung - sun'- theory of Sung - dynasty, 6. a virtual image of the 'Seung - sun' - theory, 7. a real image of it. 8. soteriology. We can't redeem ourselves ; Jesus Christ only can and must be our redeemer.

I. 서론

고대 중국인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동환 씨는 그의 중용(中庸) 천인론(天人論) 해의(解義)에서 “유교는 절대자(신)에 대한 굴종의 종교가 아니라 대지 위에 선 인간 그 자체의 가치를 높이 긍정하고 문제의 해결과 책임의 귀속을 개개의 인간 자신 위에다 두게 하였다. … 유교는 인간본위, 인간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여 유교가 철저한 인본주의 바탕 위에 서 있음을 시사하였다.¹⁾ 그리고 이 인본주의 사상체계는 인간의 본성이 생래적으로 선하다라는 확고한 성선설 위에 세워졌다.

1) 中庸, 현암사 p. 127.

본 소고는 중국의 인본주의 사상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성선설의 내용을 알아보며, 또 이 성선설이 형성되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고 나아가서 성서적 조명을 통해 이러한 인본주의 체계가 제시하는 인간 구제론(救濟論)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성선설의 형성

중용 천인편에 “하늘이 명(命)한 것이 성(性)이요, 성(性)에 따르는 것이 도(道)요, 도(道)를 따르는(달) 것이 교(教)다.”라는 말이 나온다.²⁾ 여기서 우리는 고대 중국의 성선설의 기원을 읽을 수 있다. 즉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명부(命賦)한 것’으로서 성선설이 중국인의 천사상(天思想)에서 유래한 것임을 엿보게 한다.

중국인의 천(天) 숭배는 전 11세기경 주(周)왕조에 이르러 확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은 이 천신(天神)을 인격신(人格神)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유대 민족의 여호와 신과 같이 만물을 창조하신 신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만물을 생(生)하고 보호하며 백성의 평안을 약속하는 군주를 선출하여, 천자(天子)를 임명하고 천자가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할 때에 천벌을 내리는 엄한 천신”으로 묘사되어 있다.³⁾ 이 천신이 주왕조의 지배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인격신으로서의 성격을 서서히 상실하기 시작하여 춘추전국시대(특히 전 6세기 공자시대)에 이르러서는 천신의 비인격화 작업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논어(論語) 양화편(陽貨篇)에 “하늘은 무엇을 말하고 사시(四時)가 운

2) 中庸, 현암사,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3) 森 三樹三郎, 「중국사상사」 (1) p. 32.

행되고, 백물(百物)이 생성하는데 천(天)은 무엇을 말하는고”⁴⁾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천이 인격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사계의 순환이나 만물을 생성케 하는 법칙 내지 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천신이 인격을 상실한 천도나 천리로 탈바꿈 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천신이 인격을 상실하고 비인격적 존재어로 이행되면서 중국인의 세계관은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말하자면 신이 세계 밖에 있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자연만상의 일사일물(一事一物) 내에 내재한다는 범신론적 세계관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신과 인간 그리고 자연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神), 인(人), 자연(自然)이 일직선 상에 놓이게 되는 범신론적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천신이 비인격화되어 일사일물에 내재한다고 믿는 범신론적 세계관은 중국인의 인간관의 기초가 되는 천성(天性)과 천명사상(天命思想)을 낳게 한다. 즉 인간도 자연의 연속이며 일부이기에 천(天)이 인간 내에도 내재하게 되는데, 인간 내에 내재하는 천신을 천성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천성은 천이 인간 내에 내재한 것이므로 그 천성이 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의 인성은 선하다는 성선설이 태동한 것이다. 중국인의 성선설은 이렇게 유래되었고, 그후 이 설은 시종일관 중국인의 전통적 사상으로 그들의 인간관을 뒷받침해 주었다.

4) 論語 陽貨篇

天何言哉 百物生成焉 四時運行焉 天何言哉

III. 공맹의 성선설

공자는 성선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려고 한 것 같은 인상을 주나 그의 윤리교훈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부자(夫子, 공자)의 학문에 관한 말씀은 누구나 들었겠지만 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이치에 관한 말씀은 들어 볼 수 없었다.”⁵⁾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잘 짐작하고 있던 공자로서는 인간의 본성을 쉽게 단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공자가 “사람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나 습관으로 멀어진다.”⁶⁾(천성은 비슷하나 환경과 습성에 의하여 선인, 악인, 현인, 우인으로 나뉘어져 서로의 사이가 멀어진다)라고 한 말이라던가 “집 열채 정도가 있는 마을에도 반드시 충성과 신의에 있어서는 나와 같은 사람이 있겠지만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⁷⁾라고 한 말들을 보면 그가 인간의 본성을 비슷하게 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는 맹자와 같이 뚜렷하게 성선설을 펼치지는 않았으나 그가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감을 토대로 그의 전 사상체계를 구축하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전제 위에 그의 윤리적 교훈을 펼쳐 나갔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공자의 사상은 증자(曾子)와 자사(子思)를 거쳐 맹자(孟子)에 이르

5) 論語 公治長篇(十二)

子貢曰 夫子之文長 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與 天道 不可得而聞也

6) 論語 陽貨篇

子曰 性相近也 習相遠也

7) 論語 公治長篇

子曰 十室之邑 必有忠信 如丘者焉 不如丘之 好學也

러 양심(良心, 誠心)의 내재를 바탕으로 하는 맹자의 성선설로서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맹자는 성선설의 논증에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선(善)의 4대 범주로 제시하는 사단설(四端說)을 폈다.

고자장구(告子章句) 상에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별안간 보았을 때 측은한 마음이 생겨 가서 붙든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제를 맺기 위한 것도 아니요, 동내사람들과 벗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요, 또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원성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통해 살펴보면 사람 치고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인(仁)의 단서요, 수오지심은 의(義)의 단서요, 사양지심은 예(禮)의 단서요, 시비지심은 지(智)의 단서다. 사람들이 이 사단을 지니고 있으면서 내 스스로가 선한 일을 잘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사람이요 …”⁸⁾라는 대목이 나온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 사단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므로 이 사단이 있는 이상 사람의 본성이 선하지 않을 수 없다는 확신을 맹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맹자의 확신은 인간의 본성이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생각하던 그의 논적인 고자(告子)와의 대담에서 더 선명하게 엿볼 수 있다.

고자가 말하기를 “성(性)을 버드나무(杞柳)에 비(比)하면 의(義)는 버드나무 그릇(杞柳)에 비할 수 있다. 사람의 본성으로 인(仁)과 의(義)를 만드는

8) 孟子 公孫丑章句 上 (六) …

惻隱之心仁之端也 羞惡之心義之端也 辭讓之心禮之端也 是非之心智之端也

… 有是四端而自謂不能者 自賊者也

것은 마치 버들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⁹⁾ 즉, 인성(人性)이란 것은 인력(人力)을 가하면 자유로이 굴곡(屈曲)할 수 있는 냇가에 자라는 버들과 같은 것이며, 사람의 ‘인의’라는 것은 사람이 버들을 꺾어 버들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지 선천적인 도덕성의 소산이라 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인간의 후천적인 작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인간의 작위가 가미되어 선도 되고 악도 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맹자는 “그대는 능히 버드나무의 본성을 살리면서 그릇을 만들 수 있겠는가? 버드나무(本性)를 상하게 해서 그릇(梧槩)을 만들려고 한 것이니 만일 버드나무(本性)를 해쳐서 그릇을 만들려고 하였다면 사람의 본성을 해쳐서 인(과) 의(義)를 행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였다.¹⁰⁾ 여기서 맹자는 논박하기를 버드나무로 그릇을 만들려면 나무를 꺾고 꺾질을 벗기고 휘어지게 하여 나무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나 사람의 본성은 그 본성을 상하게 해서 인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살려나가야 인의를 이룰 수 있으므로 사람의 본성은 선한 것이라고 하였다.

고자(告子)가 또 말하기를 “사람의 본성은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다 그것을 동쪽으로 터주면 동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흐른다. 사람의 본성에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것은 마치 물의 본성에 동과 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여 선악과 인간의 본성은 상관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자, 맹자는 “그대의 말과 같이 물의 본성에는 동과 서의 구분이 없거니와

9) 孟子 告子章句 上 (一)

告子曰 性猶杞柳也 義猶梧槩也 以人性爲仁義 猶以杞柳爲梧槩

10) 孟子 告子章句 上 (一)

孟子曰 子能順杞柳之性而以爲梧槩乎 將戕賊杞柳而後 以爲梧槩也 如將戕賊杞柳而以爲梧槩 則亦將戕賊人 以爲仁義與

상하의 구분도 없는가?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 사람 치고 본성이 선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고 물 치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물이 없다.”¹¹⁾라고 응수하여 인간에게는 선한 인성이 생래적으로 있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고자는 또 “식욕(食慾)과 색욕(色慾)은 사람의 본성이다. 인(仁)은 내심(內心)에 있는 것이지 외부(外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의(義)는 외부에 있는 것이지 내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¹²⁾라고 하여 ‘인내의외’(仁內義外)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고자가 인과 의 같은 도덕적인 것은 모두 외부에 있는 것, 즉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인내의외’를 말한 것은 맹자의 선내재설(善內在說)을 감안해서 자신의 주장을 한걸음 양보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¹³⁾ 그러나 고자가 ‘인내의외’라 한 것은 식욕과 색욕 같은 동물적인 본능을 본성으로 보고 인의와 같은 도덕은 후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인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애정의 표시이므로 내적인 것이고 의는 외부에 있는 대상을 중심한 행동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이라고 한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식색(食色)과 같은 동물적 욕구를 제외한 인간 특유의 도덕적 본성을 본성으로 생각하고 인의예지와 같은 특성은 외부에서 빌려온 장식물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고유의 본성이라는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孟子가 “무엇으로 인(仁)은 안에 있고 의(義)는 밖에 있다고 말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고자가 다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이 많기에

11) 孟子 告子章句 上(一)

告子曰 性猶湍水也 決諸東方則東流 決諸西方則西流 人性之無分於善不善也 猶水之無分於東西也 孟子曰 水信無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 …

12) 告子 章句上(四) 告子曰 食色性也 仁內也 非外也 義外也 非內也

13) 金谷 治, 孟子, p. 118, 岩波新書 1980. 11. 20.

내가 그를 연장자로 대우하는 것이지 내 안에 연장자가 들어 있어서가 아니며 이는 마치 밖에 있는 것이 회기 때문에 내가 회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자, 맹자가 말하기를, “그것과는 경우가 다르다. 말(馬)의 흰 것을 회다고 여기는 것과 사람의 흰 것을 회다고 여기는 것은 같다 하더라도 나이 먹은 말(馬)을 어른으로 여기는 것과 나이 많은 사람을 어른으로 여기는 것이 다름이 없겠는가? 그리고 또 어른이 의(義)인가? 어른으로 받들어 존경하는 것이 의(義)인가?”¹⁴⁾라고 반박함으로써 인간의 덕성인 인과 의는 인간 본성에 내재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성선설의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IV. 순자의 성악설

순자(荀子)는 유가의 전통사상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유가의 이단자로 지칭될 만한 주장들을 서슴지 않았다. 그중의 하나가 성악설이다. 그는 주장하기를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인간이 행하는 선행은 후천적인 작위에 의한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는 나면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향을 따라 가노라면 자연히 남과 다투게 되고 빼앗게 되지 남에게 양보하지 않게 된다. 또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는 경향을 가졌으므로 남을 해치게 된다. 인간은 또 생래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자 하는 이목을 통한 감각적 욕망이 있으므로 그 욕망을 따라가노라면 무절제해지며, 예의나 이치를 무시하게 된다. 이런 연유로 인간이 생래적인 성질이나 감정이나 욕망을 따라가도록 방임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 사회의 조리가 깨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란 악한 것임에 틀림

14) 告子 章句上(四) 孟子曰 何以謂內義外也 曰 彼長而我長之 非有長於我也 猶彼白而我白之 從其白於外也 故謂之外也 (孟子) 曰 異於白 馬之白也 無以異於白人之白也 不識 長馬之長也 無以異於長人之長與 且謂長者義乎 長之者義乎

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¹⁵⁾

이렇게 말하면 순자의 성악설이 기독교의 원죄론과 흡사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유교적 테두리 안에서의 선악을 말함이다. 순자가 말하는 본질의 성인 악도 인위적으로 가공하여 선하게 될 수 있는 성을 말한다. 수양 여하에 따라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될 수 있는 인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 교리와는 전혀 다르다.

V. 宋代의 성선설

이러한 유가의 인간론은 송대에 이르러 논리 정연하게 체계를 정돈하게 된다. 육조수당의 700년간의 중국불교의 황금시대와 5대 10국의 70년간의 전국시대를 이어받은 남북송 300년간의 송대에 이르러 주렴계(周濂溪) 장횡거(張橫渠) 정명도(程明道) 정이천(程伊川)의 주장이정(周張二程)이 우주관을 바탕으로 대표하는 신유학을 남송의 주자(주희)가 집대성하여 장대한 규모의 사상체계를 완성한다. 여기서 유가의 전통적인 성선설은 보다 정돈된 우주관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모양새를 갖춘다.

宋學의 선구자인 주렴계는 태극도설에서 우주만물의 근원으로서의 태극이 무극(無極而太極)함으로 무형무색(無形無色)의 원리임을 말하고, 이 태극이 동(動)하여 양기(陽氣)를 생(生)하며 동(動)이 극(極)할 때 정(靜)이 생(生)하고 그 정(靜)에서 음기(陰氣)가 생(生)한다고 보았다. 이 음양이기(陰陽二氣)가 교착하여 수화금목토(水火金木土)의 오행(五行)의 기(氣)를 생

15) 荀子 性惡說 拔取

(生)하고 거기서 만물이 생성한다고 생각하였다. 주립계는 이 우주생성설에서 주정무욕(主靜無欲)의 성선설을 도출하였다. 인간도 만물의 일부이며 만물과 그 근원이 같으며 만물과 같은 구조를 가지므로 인간 속에도 태극이 내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 내에 내재하는 태극 즉, 인간의 마음의 순수한 상태를 성(性)이라고 표현하였다. 태극은 아직 동(動)이 없음으로 정(靜)이요 무위다. 그러나 이 정(靜)인 마음의 태극이 만물과 접할 때에 동(動)이 생(生)하고 정(靜)에서 동(動)으로 옮기는 때를 기(幾)라고 하였다. 이 기시(幾時)에 처음으로 선과 악이 분리된다고 보았다. 본성인 태극은 선하나 이 기시에 중정(中正)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靜)을 주(主)로 하고 무욕(無欲)을 견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립계의 주정무욕의 윤리설이 생겨난다.¹⁶⁾

정이천 이후의 주정학은 인간의 본성인 태극을 이(理)로 표현하여 인성(人性)을 이성(理性)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이(理)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기(氣)에 부수하므로 인간의 마음은 이와 기를 겸비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때의 기(氣)는 이(理)와는 달리 청탁(淸濁)의 속성을 가진다. 마음이 정(靜)의 상태에 있을 때에 이(理) 그대로의 선(善)이 유지되나 이 이(理)가 동(動)할 때 기(氣)의 요소가 가미되어 애증희로(愛憎喜怒)의 동(動)을 생(生)하고 선악의 차가 생긴다. 기가 청(淸)할 때는 선이 되고 기가 탁(濁)할 때는 악이 된다고 보았다. 주정은 이(理)로서의 성(性)을 본연의 성이라 하고 기의 요소를 지닌 인성을 기질지성(氣質之性)이라 하여, 이기이원론을 설(說)하여 성선설의 오랜 걸림돌이었던 악의 출처를 규정지음으

16) 周子全書 1卷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互爲其根 分陰分陽 陽儀立焉 陽變陰合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

로써 성선설의 합리성을 더하게 되었다.¹⁷⁾

이렇게 하여 성선설은 유교의 인간관에 있어 일관된 중심사상이 되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천성이어서 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간관은 인간이 절대자에게 굴종할 필요도 없으며 신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는 오만한 인본주의 체계를 확립시켰다.

VI. 성선설의 허상

인간의 본성은 유가에서 그렇게 역설하는 대로 과연 선한 것인가? 세상에는 가정에 충실하고 국가에 충성하며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청빈한 삶을 사는 자도 많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나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다른 성인군자의 삶을 보니 인간의 본성이란 선한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허상에 불과하다. 인간의 내면생활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파계사(把溪寺)에서 10년간 장좌불와(長坐不臥)하고 20년간 동구불출(洞口不出)하였다는 한국 불교계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성철(性澈) 스님은 정말로 위대하고 정직한 도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생활은 세인이 생각한 것과는 전연 달랐다. 그가 입적하기 직전에 남긴 열반송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평생 동안 미친 男女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가득찬 죄업은 須彌山을 지난다(超過한다)

17) 森 三樹三郎 「중국사상사」(下), p. 359., Regulus 文庫 1980. 6. 20.

산 채로 無間地獄에 떨어져서 그 恨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동근 수레바퀴 붉음을 吐하면서 푸른산에 걸렸다¹⁸⁾

이 열반송에서 그는 남녀의 무리들이 자신을 도통한 성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자신의 내면 생활은 그렇지 못하기에 한없는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의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그로 인해 불타는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니 만갈래 한이 오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자신을 이미 기울어져 서산에 걸려 있는 붉은 해에 비유한 것은 평생에 걸친 수도의 삶이 끝없이 수레바퀴를 도는 것과 같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 붉음을 토하면서 서산에 걸려 있는 해처럼 자신도 붉은 피를 토하듯 만갈래 한을 토하고 있음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가의 성선설도 이에 다를 바 없다. 선이란 어디까지나 인간의 부분적인 체험과 인간의 선을 향한 향수에 불과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성선설의 가장 큰 허점은 인간 본성이 선하다면 악은 어디서 생겼느냐 하는 데 있다. 인간에게 악을 향한 성향이 전무하다면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8) 조선일보 1993. 11. 5.일자 보도

生平欺狂男女群
彌天罪業過須彌
活佛阿鼻似黃端
一輪紅掛碧山

과수미(過須彌)라는 말은, 불교의 우주관에서 우주 한복판에 수미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죄업이 크다는 것을 “하늘에 가득찬 죄업이 수미산을 지난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VII 본성의 실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우리는 전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이 있다. 이 원 부패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된다” ... 19)라는 고백이 나온다. 이는 극히 성서적인 고백이다.

성선설에 대한 계시문서인 성경의 가르침은 단호하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중에서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하였고, 20)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같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흘리는데 빠르다”라고 하였다. 21) 그는 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 오호라! 나는 피로운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라?” 22)라고 고백하였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속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3)라고 하여 인간의 내적 부패를 지적하였다. 예레미야는 “구스인(黑人)이 그 피부(皮膚)를, 표(豹)범이 그 반점(斑點)을 변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 24)라고 하였다.

19) 웨스트민스터 信仰告白書 6장 4항.

20) 시편 51:5.

21) 롬 3:9-18.

22) 롬 7:18~23.

23) 막 7:18~23.

24) 렬 13:23.

위와 같이 인간 본성에 관해 성경에 나타난 무수한 구절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1) 인간은 나면서부터 부패하여 악을 좋아하는 성향을 타고 나며, 2) 분별력을 상실하여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며, 3) 선을 향한 자유를 상실함으로 부러진 나래로 날 수 없는 것 같이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였으며, 4)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어 신령한 것에 대한 흥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바울이 말한대로 인간이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며 비방하고 능욕하며 교만하고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며 배약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이 인간 본성의 실상이다.²⁵⁾

VII. 구원론

1. 自救論(Auto-Soterism)

이렇게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선설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것을 강요한다. 성선설 위에 구축된 인간관이 인간으로 하여금 오만불손하고 가증스러운 위선자의 탈을 쓰게 만들 뿐 아니라 좌표상에 자신의 위치를 바로 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구제론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은 신(神)의 도움을 '신에 대한 인간의 굴종'으로 생각하고 그 도움을 체계적으로 거절하게 만들었다. 이리하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구책을 간구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5) 롬 1:28-31.

그러나 이런 발상은 타락한 인간 최후의 몸부림일 뿐이며,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되는 과오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과오는 비단 동양인만이 범하는 과오는 아니다. 14세기에 이태리에서 시작된 복고운동의 사상적 근간을 이룬 합리주의적 인문주의(Rationalistic Humanism)를 신봉하는 자들도 같은 과오를 범하였다. 그들도 이성의 힘으로 인간을 신에게서 해방시키고 체계의 통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였다. 착하고 선한 인간 본성(이성) 위에 낙원을 건설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1, 2차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숨어 있던 추악하고 잔인한 인간의 본성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였으며 그들의 소박한 꿈도 산산조각이 되어 버렸다.

그들이 신의 위치에 올려 놓았던 인간 이성의 힘으로는 모순 없는 통일 체계를 추구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꿈꾸던 낙원을 건설할 수 없음을 깨달았으며, 끝까지 시인하기를 거절하였던 인간 본성의 사악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의 절망은 극에 달하였으며 마침내 저들은 끈 떨어진 연과 같이 허공을 헤매면서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었다.²⁶⁾

2 代行救援論

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갚는다는 자구론은 허상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의 적선행위로 죄를 면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구상은 1) 인간 부패성의 깊이를 짐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착각이다. 성경은 인간을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으로 비유하였다. 당시의 노동자가 16만 년을 벌여 모아야 1만 달란트가 된다는

26) Schaeffer, Francis A. 「そこに 存在する 神」, p. 42.

데, 이는 인간이 평생 갚을 수 없는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2) 인간은 날개가 부러진 새와 같이 선을 행할 능력을 이미 상실하였다. 이런 인간에게 궁극적 선행(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선행)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소경에게 보기를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물에 빠진 자가 자신의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며 자신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다. 당기고 있는 그 손도 이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몸에 붙어 있을 을 망각한 행위다.

3) 적선주의(積善主義)는 그 발상 자체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선이란 본질적으로 남을 위한 행위다. 자기 집을 지어 놓고 선한 일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불쌍한 고아를 위해 집을 지어줄 때 선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아름답고 보기 좋은 선행이 궁극적으로, 동기적으로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 또는 극락 가기 위해 했다면 그 순간 아름다운 그 선행이 선 되기를 그쳐 버리게 된다. 본질적으로 남을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을 쌓아서 자기의 죄를 갚으려고 하는 일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은 인간 본성의 실체를 정시하고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 대행 원리에 의한 구원 장치를 마련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무제한의 반제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미 인간의 죄값을 치루셨다는 기쁜 소식(복음)이다. 이 사실을 믿고 수용하며, 인력으로는 불가하나 신의 도움으로 인간답게 선하게 살아가도록 겸손히 그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한다. 인간의 궁극적 구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IX. 결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자연주의 인간관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부분적인 체험과 추리 그리고 인간의 선을 향한 향수에 불과한 허상일 뿐이다. 이러한 허상 위에 세운 집은 공중 누각일 뿐이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공산주의가 그러했고 실존주의가 그러했으며, 계시 밖에 있는 모든 종교가 구상한 구원론이 그러했고 가깝게는 의회 사회주의(스칸디나비아식)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인간 근본이 선하다는 생각을 토대로 설계된 모든 구조물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궁극적 구원은 자신의 부패성을 직시하고 겸손히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大學 中庸, 玄岩社
2. 詩經, 玄岩社
3. 書經, 玄岩社
4. 論語, 玄岩社
5. 論語, 韓國協同出版公社
6. 孟子, 育文社
7. 孟子, 韓國協同出版公社
8. 憑友蘭, 中國哲學史, 鄭仁在 譯, 儼雪出版社
9. 金谷 治, 孟子, 岩波新書
10. 森 三樹三郎, 中國思想史, 上·下卷, 策三文明社
11. 井上 靖, 孔子, 新潮社
12. 貝塚茂樹, 孔子, 岩波書店

13. 淺野裕一, 孔子神話, 岩波書店
14. 市川安司, 朱子, 學問とその 展開, 評論社
15. 市川安司, 程伊川 哲學の 研究, 東大出版社
16. 宇野精一, 東洋思想 II, III, 東大出版社
17. 山田慶兒, 朱子の 思想, 岩波書店
18. 小野澤精一, 氣の 思想, 東大出版社
19. 竹內 實, 中國の 思想, NHK Books
20. 安居香山, 緯書と中國の 神秘思想, 平河出版社
21. 佐藤嘉祐, 儒教倫理の 溯源的 研究, 明德出版社
22. F. Schaeffer, そこに 存在する 神, 多井一雄譯, いのちのことは社
23. 哲學事典, 平凡社
24. 聖經



■ 박성기 ■

AZUSA PACIFIC대학에서 성서문학 전공. 부산대 영문학 석사, AZUSA PACIFIC대 신학박사, 동아대 철학박사(동양철학). 현재 부산 세계교류 협회 부이사장, 부산광역시장위촉 부산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재 단법인 中亞宣敎會, 학교법인 브니엘학원, 복지법인 韓瑞재단 설립 운 영. 부산 브니엘고교 교장으로 재직.